



**강영안:** '제국문화와 기독교'라는 박사학위 논문주제가 흥미롭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왕소초:** 첫 부분은 로마제국 말기 기독교 변증학자의 사상을 중국화자 입장에서 평가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명나라 말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포교해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반증하는 내용에 근거해 중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되고 변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에서는 기독교가 선교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강영안:** 로마 말기의 기독교 선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명나라 말기의 경우 선교 이후 전례문제 때문에 포교가 금지되고 폐쇄되었다. 로마는 기독교화되었지만, 명나라는 탈 기독교화 되는 현상을 보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왕소초:** 다수 역사가는 기독교가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로마와 중국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로마와 명나라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그것은 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현지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연구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사상을 추적하면서 그 당시 당면한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과거의 역사이지만 오늘의 중국의 현실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신학자들은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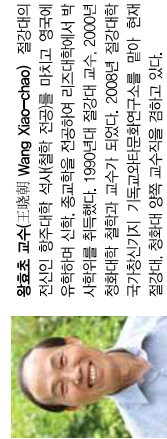
**강영안:** 중국 선교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는 적응주의 선교를 했으며 철저하게 중국 전통 종교개념에 맞추어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으나 후임자였던 롱고바르디(Longobardi)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경향이 중국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다.

**왕소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도 많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개념은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1998년도 연구성과(박사학위 논문인 '제국문화와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 학술의 길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다

(사)세계관동역회, 장신대, 절강대 기독교와타문화 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한중기독교학술대회' 참여자 왕소초 교수와 한어기독교연구소 소장 양세난 박사가 방한하였다. 이들을 서강대 강영안 교수와 총신대 신국원 교수가 세계관동역회 사무실에서 만나 좌담을 나누었다. 통역에는 오동일 박사가 수고했다. ... 편집부



**왕소초** 교수(王曉朝 Wang Xiao-cho) 절강대의 전신인 항주대학 석사철학 전공을 마치고 영국에 유학하며 신학, 종교학을 전공하여 리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대 절강대 교수, 2000년 중화대학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 2008년 절강대학 국가청신기지 기독교의태문학연구소를 맡아 현재 절강대, 중화대 양쪽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양세난** 박사(楊繼翰 Yang Shi-Nan) 홍콩 한어기독교 연구소, 청림사이며 소장이다. 현재 홍콩에서 국외 화교 학계들과 중국 국내 학자들과 연결해 한어 신학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어신학: 중국어로 번역된 신학



**강영안:** 천주교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기존 한국문화와 마찰을 빚었다. 한국문화에 대항하는 분위기여서 피의 손교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천주교가 활발히 활동을 했지만 큰 마찰이 없었다.

**신국원:** 홍콩의 피터잉이 발표한 "Christian High Education in China" 논문은 왕 교수의 발표내용과 공통점이 많았는데 공산체제 안에 서도 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 교파성 초월, 학술적 엄격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면에 동의하는가?

**오동일:** 한어 신학(중국어로 된 신학) 연구는 대학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다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먼저 중국의 학문적 담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성 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 왕효초 교수의 관점이다. 대학 안에서 학술적으로 시작할 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가 확산하게 하였다고 본다.

**신국원:**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공산주의 제도하에서 수용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하교회 같은 경우 정부 쪽에서 반감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왕효초:** 중국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해에서도 많이 다른 것 같다. 중국 대학 안에서는 기독교를 역사, 문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철학과는 기독교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다. 원래 종교학과 철학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종교학을 철학의 하위학과로 하여 철학과 안에서 종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다. 중국 상황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신국원 교수(충신대 신학과)

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기독교 철학이라고도 한다.

영국 유학 중 지도교수는 교부학을 전공한 분으로, 내가 학위를 마친 후에도 영국에 남기를 권했지만 나는 중국에 교부 신학을 전파하기 위하여 귀국했다. 그 후부터 중국에서도 교부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기독교 담론을 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양쯔난 목사가 홍콩에 한어기독교연구소를 만들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학자들의 저서도 내고 번역도 하고 장학금 주면서 중국기독교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에 왔다. 한어기독교연구소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양 기독교 총서를 현재까지 150권 정도 번역 출판했다.

**강영안:** 교부총서도 중국에 나온 것이 있는가?

**왕효초:** 현재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적지 않다. 어느 나라나 기독교의 뿌리는 교부학이다. 중국에 교부신학 관련 서적을 번역하면 단순히 교회 내부가 아니라 대학에 전파되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다. 기독교 전반에 관한 인식이 확산 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서적 출판은 홍콩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 내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도 자유로운 출판을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신국원:** 홍콩에서 출판된 자료들의 배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왕효초:** 중국 대학이나 신학교에 기증하는 방식과 중국 출판사들에 간자체로 교부신학 또는 고대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고 있다. 중국교회에서도 이를 쓰고 있다.

**강영안:**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왕효초:**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를 홍콩한 어기독교연구소에서 내양 교수에게 부탁해 번역 출판하고 후에 중국으로 들어와 출판했다. 중국 지식인들은 어거스틴을 위대한 사상가로 생각하지 위대한 기독교인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어거스틴의 작품은 서구 고전문학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어떤 이들은 나를 철학자로, 어떤 이들은 나를 종교학자로 분류한다. 그것은 나의 어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했다고 하면 나를 철학자라고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말하고, 내가 교부 저서들을 번역했다고 하면 나를 종교학자로 말한다. 공공 담론 속에서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신학도 철학으로 다루어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인민출판사에서 현대중국철학자라고 10명을 선정하여 책을 펴냈는데 그중에 왕효초 교수가 있었다.)

**신국원:** 우리나라는 철학과 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 면에서는 중국의 상황을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왕효초:**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가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포인 학회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기독교라는 주제로 교류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에 뿌리내리면서 나름의 한국적 개념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중국학자들에게는 새롭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해 볼 대상이다. 중국 기독교가 그 역사는 길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의 여러 경험을 배우고 참조할 가치가 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서구문화나 침략을 연상한다. 한국 기독교를 말하면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훨씬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한국(기독교학문연구원)과 중국(기독교와타문화연구원)의 연구소마다 강점이 있으니 상호 간에 연구성과를 나누므로 서로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나뉠대로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전에는 종교연구가 곧 종교비판이었지만 이제는 학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없어졌다.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 하고 있다.

**강영인:**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 앙고백이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학문적인 연 구로만 기독교에 접근한다면 신앙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 지 않나?

**왕소초:** 개방 이후 학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기독교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전파되어 다양한 역할을 했다. 기독교가 중국사회에 갖는 의미가 최근 10여 년간의 연구성과에 의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 예로 정부 관리와 함께하는 학술 토론에서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정부 관리 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현재 중국 상황 속 에서 기독교가 나뉠대로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전에는 종교연구가 곧 종교비판이었지만, 이제는 학 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없어졌다.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인, 특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종교신앙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통역을 하고 있는 오동일 박사(신학, 조선족)

**강영인:** 왕 교수는 지교회회의의 교류보다 대학을 통해 학문적인 교류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왕소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성과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체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학문적 탐구의 과정으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번역했다. 그런데 그 책은 기독교인들이 자신 의 신앙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그러기에 대학에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 이 교회와 관련 없지는 않다.

**강영인:** 미국의 엘빈 톨린팅가 등 칼빈대학교 기독교철 학자들이 중심이 되며 중국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오동일:** 중국의 대학에서 기독교 연구는 독특한 상황에 부딪쳐 있다. 그래서 서구와 교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 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구적 흐름과 중국 적 흐름이 상당히 다르다. 루샤오펑은 오늘에 질대 진 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적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기독교 연구학자들은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수 없다. 기독교의 고전을 심택했으며 기독교의 가치의 공경적인 의미를 인정한다. 왕 교수는 어떤 이들이 기독교를 서구의 것 이라고 하면 이를 부정하면서 기독교는 이미 중국의 것 이라 강조한다. 비록 그의 견해는 학문적 입장에서 취 해진 것이지만 오히려 그 학문성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에 대한 변증성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 변호를 위 한 변호는 때로는 그 자체의 실추력을 잃는 경우가 많 다. 학술적인 객관성이라 하여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 는 것은 아니다.



**강영인:**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도 이미 하 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순전한 기독교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의 형성이나 기 독교 공동체가 생성되었는가를 놓고 선포 차이 때 문에 다툼이 있었다. 학술적인 접근으로 기독교를 대하 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 는가 궁금하다.

**오동일:** 왕 교수는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번역하며 알리 고 있다. 하지만 선교를 선언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 만 이렇게 번역된 저술들을 중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기독교를 알리고 있다. 서구의 신학 고전 을 깊이 이해하고 알리는 것은 삼자교회나 지교회에 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담론을 교 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학이 주도하고 있 다. 중국에서의 신학 담론의 주류는 민족주의 담론으로

보착화이다. 한어 신학은 기독교를 민족성 담론으로 보 지 말고 현대성 담론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강영인:** 대학 내에서 기독교 학문을 접한 사람들이 삼 자교회나 지교회로 나아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동일:**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고전 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접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의 진 수를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그 이후의 선택은 개 인이 판단해 정할 일이다. 중국의 출판사는 정부의 통 제하에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출판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뒤따라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를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덕분이다.



**강영안:** 매우중산이나 뚜웨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왕소초:** 어떠한 민족주의도 자기 민족에 대하여 정확하 게 해석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매우중산이나 뚜웨 이밍의 유교적 보편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강영안:** 바디유의 경우 바울을 보편주의자로 보는 시각 이 있다. 왕교수님은 보편주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왕소초:** 보편주의란 여러 문화 속에서 공통으로 존재하 는 가치를 의미한다. 보편주의란 용어를 보면 중국에 서는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보편주의=서 양기치=기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스스로 자신이 가진 보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한국이 보편주의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국이 주권하고 있는 세계박람회나 월드컵 등은 보편주의 추구의 연관되어 있다.

**신국원:**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와 신교에 치중하다 보니 신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대화를 나 누다 보니 양국이 서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일본도 공공신학에 치중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

왕소초 교수의

## “공공신학과 한어신학의 관계가 중국학술계에 미치는 영향” 요약문



왕교수의 논문은 중국에서 공공신학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발전과정 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I장에서는 신학의 공공성의 의미와 교의와 신앙의 해석과 적용을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 고 공공생활을 신학의 임장에서 이해하고 시민, 사회와 정치생활의 형성을 돕는 노력으로 정의한다. II장에서는 교회의 신학에 머물러 있 던 한어신학이 1978년의 중국사회개혁개방을 계기로 하여 공공신학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학술계가 현실 정치에 종속되고 계급투쟁의 틀 안에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종교가 문화의 핵심으로 인정받게 됨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다방면 에서 시작되었다. III장에서는 한어신학이 비교회성(교파초월성)이라 는 중심적 특징에 인문성, 타문화성, 중국대륙의 기독교학술연구와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IV장에서는 한어신학이 지향해야 할 공 공신학의 규범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1) 중국국정의 특성상 신학원과 신학학과 개 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학자는 종교, 정치, 학술, 경제 등이 지나는 공경의식 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하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앙점어두기” 곧, 교리적 언어를 사용하는 호교적인 신학을 배제하고 학술적, 객관적, 과학적 연구방 법을 사용하는 진리가 필요하다. 2) 다른 관점의 학자들 및 연구관들과 개방적으 로 대화하되 특정한 신학의 입장을 표방 하거나 구조의 체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 다. 3) 중국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어신학단의 생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에 답변해야 한다.

에서 중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국과 중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왕소초:** 서로 다르기에 대화의 의미는 더 깊다. 서로 같다면 대화가 필요하겠는가? 다르기에 대화의 공간 은 넓으며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 로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 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싶다. 6

**절강대학교 기독교의태와연구소(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 ICCS)**  
 중국인문화국 교육부가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위한 철 학·사회과학 창신 기지를 설립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개방적인 연구단지이다. 기독교의 문화적 의미 를 연구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타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수임으로는 왕소초(王素超) 교수가 맡고 있다.

**절강대학교(浙江大學)**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있으며 중국내 대학 평가 서열 3위의 교육부直属 의 대학으로서 국가 중점대학이다. 1897년 “求是書院”으로 개교했으며 1998년 9월 절강대학교, 항주대학교, 절강농업대학교, 절강의과대학교가 합병되어 현재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도서관은 중국대학 중에서 가 장 많은 606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만 42,000여명에 이 른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으로 많 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